

20일 Market Index			
↑ 코스피	6219.09	↑ 코스닥	1174.85
	(+27.17)		(+4.81)
↓ 금리(연이자율)	3.348	↓ 환율(원/달러)	1474.55
	(-0.023)		(-8.95)

삼성·SK 등
반도체 업황
잠정 빛 실적 예고
04



수출·경상흑자 늘어도 약세... '환율 공식' 흔들

한은이 짚은 '환율의 새 공식'

반도체 호황과 사상 최대 무역흑자에도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외환시장의 작동 방식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전처럼 수출이 늘고 경상수지 흑자가 커져도 곧바로 원화 강세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민간의 해외투자 확대와 외국인 자금 흐름,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환율을 더 크게 흔들는 국면이란 진단이다. **〈관련기사 3면〉**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2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됐지만 실질환율은 오히려 상승, 즉 원화 절하가 상당 기간 이어졌다.

경상수지 흑자 늘어도 환율 상승 민간 해외투자·외국인 자금흐름 에너지 충격 등이 환율 변수 요인

수출과 경상흑자 확대가 곧바로 원화 강세로 연결되던 기존 공식이 흔들리고, 그 자리를 민간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와 외국인 자금 흐름 같은 금융 변수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대외자산 축적 방식의 변화가 깔려 있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자산 축적이 외환보유액 같은 공공부문 준비자산 중심에서 민간의 포트폴리오 투자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고령화에 따른 저축 증가와 국내 투자 둔화가 맞물리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더 이상 원화 강세를 뜻하지 않고 금융계정을 통한 자본 유출과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환율을 움직이는 충격 역시 재화 거래 중심의 '상품충격'보다 자본유출과

통화 절하를 동반하는 '금융충격'의 비중이 커졌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실제 최근 흐름도 이런 설명과 맞아 떨어진다.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3% 늘어 1988년 8월 이후 가장 빠른 증가율을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은 151.4% 급증했다. 무역수지도 257억4000만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를 찍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금통위에서 원·달러 환율이 중동 전쟁에 따른 달러 강세와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도 영향으로 1500원대까지 올랐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경상흑자라는 전통적 원화 강세 재료보다 글로벌 위험회피와 금융시장 수급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의미다.

환율 문제는 단순한 시장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당국의 관리 과제로 더 직접 연결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스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9일 워싱턴DC에서 만나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외환시장 관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상흑자만으로 환율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구조 변화 속에서, 당국도 환율의 '레벨'보다 과도한 쏠림과 변동성을 관리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문제는 약한 원화가 외환시장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다. 3월 수입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8.4%, 전월 대비 16.1% 올라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원유 가격은 88.5%나 급등했다.

한은은 "중동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물가 상방 압력을 키우고 성장 하방 위험도 함께 높인다"고 밝혔다. **1/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李 대통령-모디 인도 총리, 공동식수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뉴델리 영빈관 하이데라바드 중앙공원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아쇼카나무(ashoka tree) 공동식수를 하며 악수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뉴델리 영빈관 하이데라바드 중앙공원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아쇼카나무(ashoka tree) 공동식수를 하며 악수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저전력 D램 '소캠2' 본격양산 SK하이닉스, 메모리 세대교체

압착식 커넥터 기반 모듈 구조 탈부착·교체로 유지·보수 편의 기존대비 대역폭 2배 이상 확대

SK하이닉스가 10나노급 6세대(1c)L PDDR5X 저전력 D램 기반 차세대 메모리 모듈 '소캠2(SOCAMM2)' 192GB를 본격 양산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캠2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제품에 주로 쓰이던 저전력 메모리를 서버 환경에 맞게 재구성한 차세대 모듈이다. 기존 LPDDR이 메인보드에 직접 납땜되는 방식이었다면 소캠2는 압착식 커넥터 기반 모듈 구조로 탈부착과 교체가 가능해 서버 운영 과정의 유지·보수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에 최신 1c 나노 공정을 적용해 기존 RDIMM 대비 2배 이상의 대역폭과 75% 이상 개선된 에너지 효율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모듈 크기도 기존 DIMM 대비 57% 작아 고밀도 AI 서버 환경에서 공간 활용도가 높다.

인공지능(AI) 시장이 학습에서 추론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거대언어모델을 저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는 소캠2가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글로벌 C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수요에 맞춰 양산 체제를 조기 안정화했다.

이번 제품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플랫폼 '베라 루빈(Vera Rubin)'에 최적화돼 설계됐다. 베라 루빈에는 36개의 CPU와 72개의 GPU가 탑재되며 소캠2는 CPU 인근에서 원활한 데이터 처리를 돕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SK하이닉스는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한 초거대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전체 시스템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美-이란 기싸움, 해상 무력시위 번져

전운 감도는 페르시아만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이 페르시아만 해상에서 무력시위로 번졌다. 미군이 이란 선박에 포격을 가한 뒤 나포했고, 이란군은 이에 대응해 드론으로 미 군함에 타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주간의 휴전 기간 만료를 이틀 앞둔 시점이다.

미국은 후속협상을 위해 대표단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타결에 이르지 못할 시 "더는 착한 사람 행세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란 측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에 대한 간섭(역봉쇄)을 철회하지 않는 한 협상 재개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적국의 속내가 의심된다고 했다. 전투 재개 내지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언급이다.

미군은 19일(현지시간) 이란 화물선에 함포 사격을 가한 뒤 나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적은 글에서 "오늘 길이 약 900피트(275m)에 무게가 항공모함에 맞먹는 '투스카'라는 이름의 이란 화물선이 우리군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김연세 기자 kys@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간디 묘소에 헌화... "온 세상이 평화로 가득하길 기대하며 노력할 것"
▲김 총리 "지방선거로 추경 집행 늦어질 가능성 상당수 파악... 신속 편성 독려" **〈사진 뉴시스〉**

▲김 총리 "현대차 투자는 꿈의 시작... 새만금, 5극3특 대표 선도모델로"
▲정청래, 장동혁 "방미" 비판... "차관보 만나려 목뺏고 기다렸나"

▲송언석 "장특공 폐지 안 돼...李, 당정 간 조율도 안 된 메시지 올려"
▲조국 "KTX 경기남부역 신설해야... 안 되면 국회서 따질 것"

社告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부문

-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② 영상 촬영 및 편집(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 ① 전형방법
 - ▲ 1차: 서류전형
 -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영상제작 및 편집 평가)
 -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00명
- ③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① 회사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구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4월 30일(목)
- ②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4월 30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옥인동, 메트로빌딩)
-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년 5월 8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취재역량 평가시험

- ① 일시: 2026년 5월 13(수) 10시 ~ 16시 40분
- ② 장소: 추후 통지
- ③ 내용: 공지하는 주제로 취재기사 작성 또는 영상제작물을 제작해 제출
- 1차 실무면접
 - ①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② 일자: 2026년 5월 14일(목)~15일(금) 중 1일
 - ③ 장소: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2차 최종면접
 - ① 대상: 취재역량평가시험 및 1차 실무면접 합격자 **〈2면에 계속〉**

metro